‘정계 복귀’ 정 동 영 의원에게 듣는다

“기필코 복당…민주당 살리겠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무소속 출마라는 초강수를 통해 정계복귀에 성공한 정동영 의원의 행보가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일보는 11일 전북 순창군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30분 동안 재보선 후 정동영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의 심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부모의 선영을 둘러본 뒤 인터뷰에 응한 정 의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과 함께 민주진영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당원이 당의 중심이 되는 ‘풀뿌리 쇄신론’을 강조했다.

현 민주 親盧·386 지도부 권력추종적 행태 쇄신해야

지도부 ‘밀실 야합’ 당 흔들어 당권은 지켜도 정권창출 못해

-무소속 출마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MB(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서민 경제의 골이 깊이 패인 것은 물론 남북 관계, 민주주의 등이 과거로 후퇴하면서 국민의 절망감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5, 16대에 국회의원을 했었던 전주 덕진구에서 재선거가 이뤄져 백지장도 맞들겠다는 심정으로 귀국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문을 걸어 잠궜다. 결국 고민 끝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무소속 출마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전주 완산 갑의 신 건 후보와 무소속 연대에 나선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자당의 대선후보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며 공천을 배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짓밟은 것은 물론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지도부를 쇄신하고, 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동영 혼자만이 아닌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동영-신건 연합’이 이뤄졌다. 그리고 전주 시민들은 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줬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를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강력하게 비난했는데.

▲현재의 친노·386 지도부는 호남을 배제한 전국정당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호남 배제 논리가 이번 선거에도 작용했다. 지역 민심에 대한 철저한 외면, 지역 민심과 이반된 공천 등이 이를 반영한다. 특히, 지도부 내의 일부 386 세력은 당 보다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먼저 챙기는 권력추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복당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당 문제가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저와 신 건 후보를 지지한 전주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며 호남 민심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 민심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과 명분이 없다. 원칙대로 복당을 신청할 것이고 지도부는 당원과 지지자의 뜻에 따라야 한다.

-복당 신청은 언제쯤 할 것인가.

▲서두르지 않겠다. 민심과 함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복당에 나서겠다.

-일각에서는 복당이 무산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당원서까지 작성했다. 정동영의 13년 인생은 민주당 당원의 삶이었다.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기필코 복당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승리로 규정했는데.

▲이번 재보선은 MB 정부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심판이었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호남 완패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 이뤄졌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권보다는 정권 창출에 고민해야 하는데 덧셈보다는 뺄셈 정치를 하고 있어 답답하다. 이런 태도로는 기득권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 창출은 어렵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는다면.

▲우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불투명성 등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지도부가 거부하는가 하면 소수 386 친노 세력들이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되고 있다. 리더십의 붕괴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현재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국면이다. 당에 당원이 없다. 당내 직접민주주의는 실종됐고 지도부의 밀실 야합이 당을 좌우하고 있다. 정당개혁이 10년 후퇴한 것이다. 풀뿌리 당원들이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100만 당원이 참여하는 역동적 정당이 돼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직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조언이 있다면.

▲MB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관점과 경험의 문제다. 대북 정책 수행자들의 관점은 대화, 협력보다는 대결, 붕괴의 색채가 강하다. 또, 대화와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험 부족도 큰 문제다. 정부는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끈질기게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롭게 제시하는 비전이 있다면.

▲한민족경제공동체 구상을 다듬고 있다. 개성공단 10개만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이뤄진다. 경제공동체는 경제적 성취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데다 8천만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국가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개인의 정치적 미래는 지금 중요치 않다. ‘누구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권을 되찾을 것인가에 집중할 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그날의 상처 잊고… 지난해 5월12일 중국 쓰촨 대지진 당시 붕괴된 시팡 마을의 건물 잔해에서 구출된 소녀(왼쪽)가 1년 후인 지난 10일 마을 임시 캠프에서 다른 어린이들과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서 첫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

미국서 입국 30대…당국, 동승객 143명 격리조치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해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위생부는 11일 미국에서 최근 중국으로 돌아온 쓰촨성의 한 중국인 남성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성이 바오씨인 이 30세 남성은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첫 신종플루 확진자다.

이 환자는 고열 증세를 보인 뒤 쓰촨성 인민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중국 위생부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 7일 노스웨스트항공(NW029편)을 타고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출발해 도쿄를 거쳐 지난 9일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같은날 쓰촨항공으로 청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검사 대상자로 판명된 직후 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143명을 구급차 50여대를 동원해 격리조치에 들어갔다.

이들 중 중국인은 69명에 외국인은 75명이며 이들은 베이징시 14개 구와 현에서 7일간의 정밀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격리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주중 대사관은 “현재까지 외국인 75명 중에는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확인된 직후 중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항과 항만 등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 의혹에…’ 日 오자와 끝내 사의

‘정권교체’를 내걸면서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을 이끌어오던 오자와 이치로(66·사진) 대표가 1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암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대표직을 사퇴했다. 자신이 존재 이유로 내걸었던 정권교체를 자신의 손으로 이뤄내겠다는 꿈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대표직에서 낙마한 것이다.

그는 지난 2007년 7월 아베 신조 당시 정권하에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획득하면서 참의원에서 최초로 야당이 제1당이 되는 성과를 낸 이후 줄곧 조기 총선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주도해 왔다.

한때 아소 다로 현 총리를 제치고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여권의 실정과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호재를 만나 정권 교체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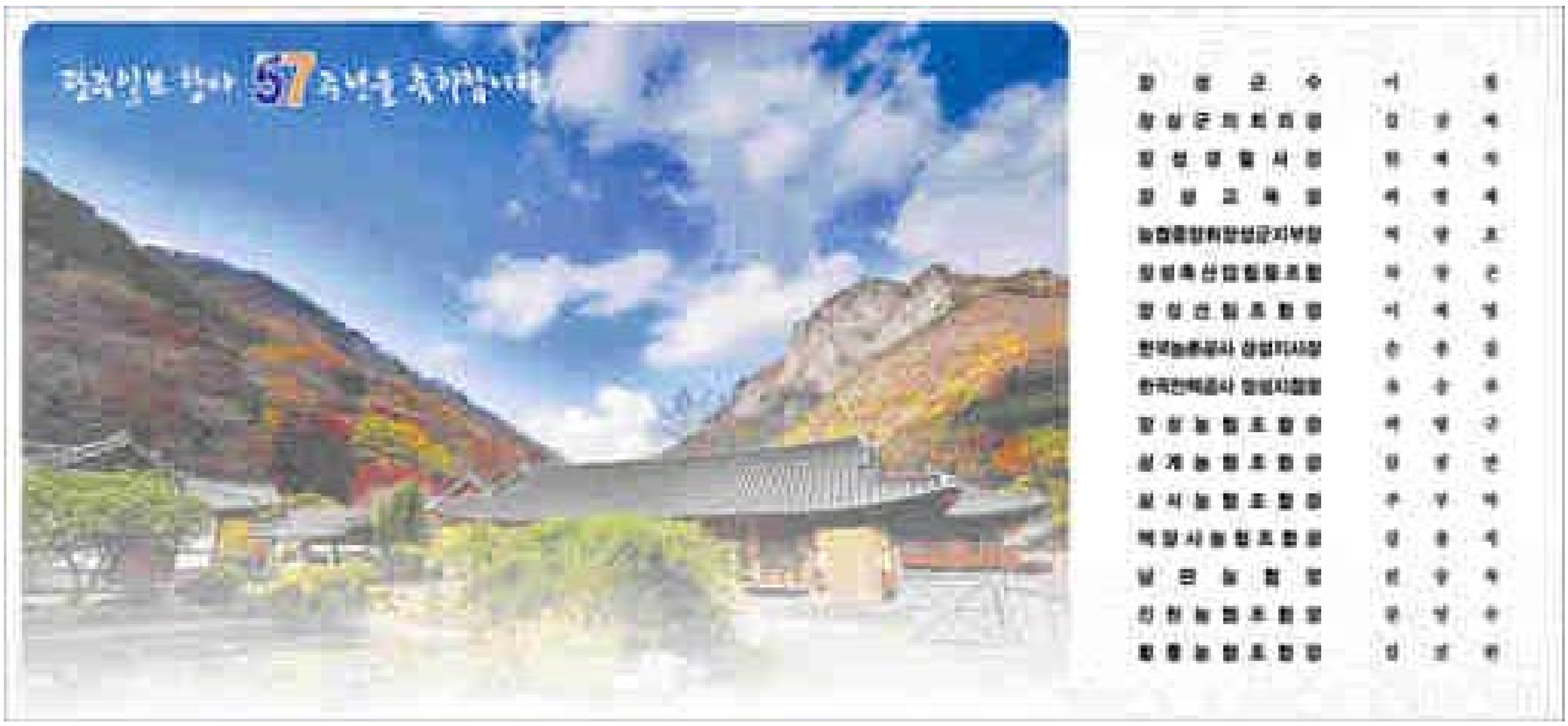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 3월 초 자신의 측근인 오쿠보 다카노리 비서관이 니미마쓰 건설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본인도 구시대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정권교체를 위한 막판 장벽을 넘지 못했다.

오자와 대표는 자민당 핵심파벌인 다나카파, 다케시타파 출신이다. /연합뉴스

푸틴 러시아 총리 내년 대선출마 시사

푸틴 러시아 총리가 2012년 대선에 도전할 의사가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푸틴 총리는 이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정치적 협력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지만, 메드베데프의 4년 임기가 끝날 때 공직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 나온 것이다.

푸틴은 2000~2008년 대통령으로 일하다 1990년대부터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고 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